

상상력의 철학적 근거*

-흄의 상상력 이론을 중심으로-

홍 병 선

주제분류 영미철학, 형이상학

주요어 상상력, 흄, 인상, 창조력, 인문학

요약문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대한 교육적 중요성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그 지향점과 이론적 토대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문학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자 인문학이 갖는 고유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상상력(imagination)’을 둘러싼 문제가 인문학, 특히 철학에서 또 다시 주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문학 고유의 방법론을 상상력에서 타진하고 있거나 인문학적 사유 지평의 확장이라는 측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의 목표 또한 상상력을 핵심적인 철학적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상상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많은 다른 철학적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긴 인물인 흄(D. Hume)의 철학에 대해 살펴 보고, 인문학적 사유지평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상상력의 기여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있다. 흄에게 있어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상상력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지각에 단순히 주어진 것들을 넘어 원인과 결과간에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는 믿음, 구체적인 관념들을 넘어 그 관념들을 묶어 준다고 생각되는 자아(인격)라고 불리는 동일한 어떤 실체가 있다는 믿음 등은 모두 상상력의 작용으로 가능한 것들이다.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과제번호: KRF-2007-321-A00218).

1. 들어가는 말

20세기를 거쳐 학문의 실용성, 기능성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인문학의 설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현실은 최근 대학교육과정에서 인문학 관련 과목들이 축소되는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문학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로 비쳐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실용성과 기능성 중심의 현실만을 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가치를 묻기 보다는 효용성에 대해 묻고, 이에 입각한 해체와 구성이라는 냉혹한 원리가 비단 현대 사회에서만 적용되는 원리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인문학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는 학문간의 융합이라는 흐름과 함께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이 역시 ‘쓰임’의 일환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더군다나 전통적인 전공이나 분과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전공과 교양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전통적 분류 또한 더 이상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인문학이 갖는 잠재적 가치와 효용성이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곧 인문학의 채널을 보다 활짝 열어놓고 그 방법론에 대한 과감한 전환을 통해 다양한 학문과 서로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적용하는 것이 인문학이 갖는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인문학적 소양 함양’이라는 교육적 중요성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그 지향점과 이론적 토대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기존 논의에 대한 재성찰과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나가야만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기존의 노력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보다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을 촉발해 낼 수 있는 적용 가능한 모델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반이 취약한데서 기인한다.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다각적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다는 사실은 인문학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대응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 일차적인 답변은 인문학이 갖는 고유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가 철저히 요청된다는 점이다. 최근 ‘상상력(imagination)’을 둘러싼 문제가 인문학 분야에서 또 다시 주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문학 고유의 방법론을 상상력에서 타진하고 있거나 인문학적 사유 지평의 확장이라는 측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¹⁾ 물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인문학 교육모델의 개발과 교육방법론의 재고 등을 통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입을 모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수행한 성과들은 바로 이와 연관된 것들이고 대부분의 비판 역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구체적인 대안의 마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내용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마련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인문학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의 이론적 근거 마련 없이 그 적용 및 활용의 측면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실험 단계의 과학적 성과를 기술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혼란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문학적 사유 지평의 확장을 위한 이론적 근거에 해당하는 상상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상상력’이 매우 일반적 주제임을 감안했을 때, 그것이 예술적 창조나 과학적 가설의 성립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분명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문학적 소양 함양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상력의 계발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말하자면 인간의 지적 창조 작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필시 상상력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

1) 상상력이 인문학에서 주된 화두로 등장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상상력이 주로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논의되던 것이 최근에는 종교적, 신화적, 역사적, 생태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과학적 등 인문·사회과학 영역 전반에서 예외없이 그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에서 상상력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그래서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 거의 드물 정도로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이론을 제시해 왔다.

상상력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²⁾ 하지만 상상력을 핵심적인 철학적 주제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상상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많은 다른 철학적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긴 인물은 흄(D. Hume)이다. 흄의 철학에서 상상력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이것이 인문학적 사유지평의 확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적 사유지평의 확장을 위한 이론적 토대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2. 상상력에 대한 흄의 기획

알려진 바와 같이 흄은 우리의 지각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한다. 인상(impression)은 감각과 같이 경험의 직접적인 자료라고 한다면, 관념(idea)은 인상의 복사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미지(image)이다.³⁾ 그래서 흄은 관념을 심상(心像)으로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생

2) 그는 ‘상상(phantasia)’을 ‘지각에 근거해 발생하는, 지각과 유사한 일종의 운동’ 또는 ‘판타스마타(phantasmata)가 나타나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상상력을 지각이나 믿음도 아니라고 하면서 상상력에 독립된 위치와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상상력을 독립된 능력으로 취급한 후, 철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상상력과 지식의 관계에 있었다. 그들은 상상력을 지식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요소나, 인간을 오류에 빠지게 하는 근원, 또는 지식과 오류 모두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De anima*, III권 427bf, 428b18, 장영란(2000), 2장 참조.

3) 흄은 인상과 관념의 차이를 생생함vivacity이라는 말로 묘사한다. “이것들의 차이는 이들이 우리 마음에 부딪쳐서 우리의 사유나 의식에 들어오는 데에서 갖는 강도 force와 생생함의 정도에 있다. 가장 힘있고 강렬하게 들어오는 지각을 우리는 인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나는 우리의 모든 감각, 정념, 감정이 영혼에 처음 나타났을 때 이것들을 이 이름으로 파악한다. 관념에 의해서 나는 사유와 추리에서 이것들의 희미한 이미지들을 의미한다.” D. Hume(1978), 2-3쪽.

각한다는 것은 관념의 소유를 의미하고 관념을 소유한다는 것은 곧 이미지를 떠올린다는(상상함)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상력이란 이러한 이미지를 산출해 내는 능력(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상상력의 일차적인 역할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관념들을 제공해 주는 일이다. 그렇다면 인상을 마음속에 재생시켜 주는 능력이 다른 아닌 상상력인 것이다. 결국 우리 생각의 토대인 관념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생각조차 있을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러한 토대를 제공해주는 상상력이야말로 우리가 사유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흄에 따르면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능력을 상상력과 아울러 기억(memory)을 들고 있다⁴⁾. 상상력과 기억의 차이는 인상과 관념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갖는 강도(強度)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상상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관념보다 훨씬 생생하고(lively) 강렬하다(strong).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할 경우 그에 대한 관념은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다. 이에 비해 상상을 통한 우리의 지각은 그 강도에 있어 희미하고 약하게 와닿는다.⁵⁾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인상을 받아들일 경우, 흄의 설명에 따르면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인상의 생생함과 관념의 희미함 중간 정도에 속하는 생생함을 갖고 다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상을 되풀이하는 기능이 기억이다. 다른 하나는, 단순한 관념 즉 인상의 희미한 모사나 이미지로서 다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상을 되풀이하는 기능이 곧 상상력이다.

상상력과 기억 간에는 이러한 차이 이외에도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기억은 최초 인상들을 받아들일 때와 동일한 순서로 재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순서상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상상력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자유롭다. 즉 상상력은 관념들의 질서를 넘어서는 점에서

4) D. Hume(1978), 8-10쪽.

5) D. Hume(1978), 9쪽.

기억과는 다르다. 상상력의 이러한 특징은 바로 복합 관념(complex idea)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 흄에 따르면 인상들은 각각 단순한 감각기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복합인상이란 동시에 하나 이상의 감각기관을 통해 생기는 인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물, 즉 하나의 바나나를 지각할 때 그 바나나에 대한 인상이 바로 복합 인상의 사례가 되는데, 이 때 바나나에 대한 복합 인상을 이루고 있는 여러 단순 인상들 이를테면 색의 인상, 맛의 인상, 냄새의 인상, 모양의 인상 등은 각각 서로 구분되고 각각 다른 단일한 감각기관을 통하여 생겨나게 되고, 이것들이 함께 작용하여 바나나라는 복합인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사실에 대한 감각 인상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기억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합 인상은 기억에 의해 재생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상상력에 의해 생겨나는 방식에 따를 수도 있다. 어떤 바나나에 대한 나의 관념은 기억에 의존하여 재생되기도 하고 상상력에 의하여 재생되기도 한다. 그런데 기억에 의하여 재생된다는 것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구체적인 특정한 바나나를 지각할 때 생긴 복합 인상이 구체성을 지닌 상태로 재생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상력에 의해 재생된다는 것은 각각의 인상들이 생긴 시간의 순서나 각 인상들의 공간적 배열까지도 원래 지각될 때의 그것과는 다르게 재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자에 따른 바나나의 관념은 구체적으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각된 특정한 바나나에 대한 관념인 반면, 후자에 따른 관념은 구체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지각된 다양한 인상의 결합일 수 있다.⁶⁾ 따라서 상상력에 의해 생긴 복합 관념의 경우 그 복합 관념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순 관념들에 대응하는 단순 인상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그 단순 인상들의 결합 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

6) 말하자면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지각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어쩌면 이 시간 이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각된 바나나의 어떤 한 부분과 저 시간 저 곳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지각된 바나나의 한 부분을 결합시켜 생긴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물론 상상력 자체가 인상을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인상이나 관념을 자율적으로 결합하고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창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⁷⁾

결국 기억과 상상력의 차이에 대한 흄의 입장에 따르면, 기억은 단순 관념일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순서와 위치까지도 보존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기억이 어떤 대상에 대한 인상을 원형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그 인상을 구성하는 단순 인상들의 질서와 위치 그리고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서 보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바둑 對局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가 치른 대국에 대한 회상뿐 아니라 그 대국이 진행된 순서 또한 정확하게 떠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상력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단순 관념들을 임의로 결합하거나 복합 관념들을 단순 관념들로 분리시켜 이것들을 재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상상력이 단순 관념들을 자유롭게 분리하고 결합시킨다는 것은 상상력이 지각들의 관계를 자유롭게 변형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상상력과 기억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 인상과 복합 인상의 구별을 통해 인식론적으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려는 흄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상력이 인상이나 관념들을 결합시키고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흄에 의하면 상상력의

7) 이 점에 대해 이준호 교수는 다음과 언급하고 있다. 즉, “복합적인 것을 단순한 것으로 분리하고 다시 이 단순한 것을 복합적인 것으로 결합”하는 것은 상상력이며, 『논고』의 제2원리는 바로 이 상상력의 원리이다. ”이성을 통해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리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다.“ 이 때 이성은 복합 지각들에서 단순 지각들을 서로 구별하고, 상상력은 복합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단순 지각들을 서로 분리한다. 이준호(2005), 2장 참조.

8) 기억에 관한 흄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상상력은 근원적 인상과 동일한 질서와 형태에 얽매이지 않지만, 기억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이 근원적 인상과 동일한 질서, 그리고 형태는 어느 정도 얽매인다. 기억은 그 대상에 현전했던 본래 형태를 유지하며, 우리가 무엇을 상기하는데 있어서 그 대상을 벗어나게 되는 것은 모두 기억이라는 직능의 결합 또는 불완전함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D. Hume(1978), 9쪽.]

이러한 능력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상상력이 자유롭게 관념들의 결합과 분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연합의 어떤 일반 원리들에 따라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상력이 관념들을 자유롭게 배열한다는 점에서 기억과 구분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흄에 따르면 관념들은 그 성격에 따라 서로 구분되는데, 말하자면 관념들 간에 어떤 것들은 서로 결합될 수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서로 결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념 자체가 갖는 일정한 성질로 인해 그 결합 방식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로를 흄은 일종의 원리로 간주하였다. 소위 관념 연합의 원리(principles of association of ideas)가 바로 그것이다.⁹⁾ 이러한 관념 연합의 원리에는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원리들은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단일체를 이루는 원리이기도 하다.

상상력의 자율성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했을 때 그 제약이 바로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 등과 같은 원리들이다. 상상력이 관념들을 결합시킬 때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들에 따른다는 것이다. 흄이 말하는 상상력의 자율성은 이와 같이 분명한 제약이 따르는 자율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제약의 성격이 자율성의 성격 또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해 흄은 상상력이 관념들을 결합시킬 때 관념들이 자연적으로 인도하는 방식에 따라 결합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⁰⁾

흄에게 있어 상상력은 종합적 구성 능력으로서 창조력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상상력의 창조물은 진리일 수도 허구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상력이 구성해 낸 복합 관념에 대응하는 복합 인상이 있다면, 상상력이 구성한 그 복합 관념은 진리의 창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상력이 구성한 복합 관념에 대응하는 복합 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복합 관념은 허구일 따름이다. 말하자면 상상력은 진리를 추론할 수

9) D. Hume(1978), 11-13쪽.

10) D. Hume(1978), 10쪽.

도 있겠지만 허구를 추론할 수도 있다. 신화나 공상과학, 문학 등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허구이나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서 실현된다면 허구가 아닌 현재의 사실이 된다. 그러나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관념에 대응하는 감각 인상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관념을 참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상력이 구성해 낸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흄은 상상력의 구성적 종합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상상력이 구성해 낸 관념을 참이라고 믿는 기준을 그 관념에 대응하는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형이상학의 체계를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실체나 영혼, 신 등과 관념을 상상력은 얼마든지 구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념에 대응하는 인상이 없다면 그 관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그 관념은 상상력이 구성해 낸 허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흄의 의도에 따라 실체나 영혼, 신 등의 개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철학은 형이상학적인 독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3. 실체와 상상력의 역할

흄에 따르면 실체(substance)들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인상에서 비롯된다. 또한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우리의 지식은 감각에서 비롯된다. 실체에 대한 우리의 복합 인상은 특정한 감각에 따른 단순 인상들로 나누어질 수 있고, 역으로 개별적인 단순 인상들이 모여 복합 인상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어떤 실체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개별적인 단순 인상에서 비롯된 단순 관념들이 서로 결합하여 특정한 복합 관념을 이루고 여기에 우리는 일정한 이름을 부여하게 된다. 이 때 단순 관념들을 결합시켜 하나의 복합 관념을 만드는 것은 바로 ‘상상력’의 역할이다.¹¹⁾ 말하자면 상상력은 최초로 떠올린 상과 연관된 다른 상을 떠올리

11) 이 점에 대해 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양태에 대한 관념 뿐 아니라 실체에 대한 관념도 상상력에 의하여 결합된 단순 관념들의 합성(collection)외에 다름 아니다.” [D. Hume(1978), 16쪽.]

게 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흄은 복합 관념을 형성함에 있어 상상력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 개의 대상들 간에 어떤 유사성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들 모두에다 동일한 이름을 적용시킨다. 이것이 습성화된 뒤에는 그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그 대상들 중의 하나를 떠올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나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관념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별되는 많은 다른 대상들에게도 적용되어 왔다고 여겨진다.”¹²⁾

여기에서 흄은 상상력의 작용에 앞서 습관(학습)이 먼저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말하자면 상을 만들어 내는 상상력의 작용이 가능하기 위해선 먼저 일정한 습관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¹³⁾ 뿐만 아니라,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본 논의와 연관 부분만을 다루고자 한다.

흄에 따르면 실체에 대한 관념은 상상력에 의해 결합된, 그리고 그에 일정한 이름이 부여된, 단순 관념들의 집합일 따름이다. 이 말은 엄밀하게 흄이 실체의 개념을 부정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인상으로서 지각되는 것은 실체라기 보다는 오히려 개개 사물의 성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체 관념에 대한 흄의 분석에서 '일반 관념'의 문제에 대해 중요

12) D. Hume(1978), 20쪽.

13)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우리집에 야옹이라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마침 누군가에게 고양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 보자. 그 말을 듣거나 보는 순간 즉시 내게 형성돼 있던 습성에 의하여 특정한 고양이, 즉 야옹이의 상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물론 먼저 떠오르는 상은 야옹이에 관한 상이겠지만 고양이라는 말이 야옹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고양이를 일반을 가리킨다는 점도 내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흄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때 내가 이해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고양이 일반을 가리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고양이 일반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특성의 고양이도 아닌, 다시 말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 한다면 이는 흄이 말하는 개 일반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다.

한 함축을 지니는데, 곧 일반 관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⁴⁾ 그 이유는 관념이 인상에서 유래하며, 인상이 개별적이라면, 일반 관념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흄이 해명해야 할 문제는 ‘이름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말하자면, 흄의 이론에 따르면 어떤 구체적인 성질도 갖지 않는, 즉 극히 추상화된 실체 일반은 관념화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관한 어떠한 상도 우리는 가질 수 없게 된다.¹⁵⁾ 그런데 흄의 견해에서 실체 일반을 가리킨다는 말은 구체적인 실체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14) 이 점은 실체의 관념이 감각 인상(impression of sensation)으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반성 인상(impression of reflexion)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물음과 관련이 있는데 이에 대해 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그것(실체 관념)이 감각에 의하여 우리에게 생긴 것이라면, 어떤 감각에 의하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생긴 것인지 나는 묻고 싶다. 그것이 만약 눈에 의하여 지각된 것이라면 색깔이 될 것이고, 귀에 의하여 지각된 것이라면 소리일 것이고 입에 의하여 지각된 것이라면 맛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구도 실체가 색깔이나 소리 또는 맛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리라 믿는다. 따라서 실체가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에 대한 관념은 반성 인상에서부터 나왔다고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반성 인상은 정념(passion)과 감정(emotion)으로 나뉘는데 그 어느 것도 실체를 대변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개별적인 성질들의 집합체와는 구별되는 실체에 대한 관념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실체에 관하여 우리가 말하거나 추론할 때도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D. Hume(1978), 16쪽.] 여기에는 바로 추상 관념이든 일반 관념(general idea)이든 우리 일반적 이라고 부르는 일정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김효명 교수는 “... Hume도 이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였고 스스로도 많은 일반 관념들을 사용하였다. 일반 관념이 없다면, 또는 일반 관념을 나타내는 일반 용어가 없다면 우리의 사고와 언어행위의 범위가 지금 보다는 훨씬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물론 이 문제는 Hume의 이론에서만 생기는 특수한 문제로서 Hume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모종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Hume의 철학에서 상상력이 또 한번 중요하고도 특이한 역할을 하게 되는 대목이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효명(1997), 참조.

15) 『인성론』 제1권 1부 7절에서 흄은 추상 관념에 관하여 비교적 긴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절의 앞 부분에서 흄은 모든 관념이 개별적이라는 점, 모든 관념이 구체적인 성질들을 갖춘 구체적인 것에 관한 관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에 이어 그는 관념들이 모두 이와 같다면 추상적인 관념, 일반적인 관념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다른 실체들에 관한 상, 즉 불특정의 다수의 실체들에 관한 상도 떠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해 흄은 실체 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는 특정한 이름을 부여했던 인상들의 집합과 유사한 집합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이름을 유사한 대상들에 확대 적용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습관화 된다. 일단 이러한 습관이 형성되고 나면, 역으로 그 이름을 듣게 될 경우 우리의 상상력은 그 이름이 적용될 수 있는 여러 대상들 중, 특정한 대상에 대한 관념을 떠올리게 된다. 물론 상상력은 이름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들을 모두 떠올리지는 못한다. 하나의 이름으로 인해 모든 관념을 떠올린다고 보다는, 그 이름이 적용되는 대상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된 것들만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구체적인 성질을 갖는 실체를 접하면서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유사성에 근거해서 동일한 이름을 여기에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학습내지 습관화되고 그렇게 해서 적용된 이름을 듣게 되면 특정한 실체를 떠올리게 되고 또한 그와 연관된 불특정한 실체를 동시에 떠올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양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고양이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고양이라는 말을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고양이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의 고양이들에 대한 상도 동시에 떠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상상력의 작용 때문이라는 것이 흄의 생각이다.

그런데 실체와 관련한 흄의 전략은 형이상학적 독단에 대한 비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흄에 따르면 우리의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감각적 지각의 대상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사유 가능하지만, 사유 가능하다고 해서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존재와 사유는 진리 대응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 가능하다는 것이 존재한

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물론 사유 불가능한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사유의 원천은 감각 경험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감각 경험은 인식의 원천이다. 그렇다면 감각 경험의 원인으로 여겼던 실체는 인식의 대상이 아닌 이성이 구성해 낸 창조물이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없다면 이성이 만들어 낸 허구라는 것이 흄의 생각이다. 이는 실체로서의 정신이나 신의 존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대한 흄의 비판적 의도를 깔고 있다.

4. 상상력과 외부 세계에 대한 믿음

흄은 외부 세계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믿음과 관련하여 상상력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흄에 의하면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나 지식은 기본적으로는 인상들로부터 유래하는데 인상 자체는 개별적인 것들이다. 여기에서 개별적이라는 것은 한 대상에 대한 인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한 개인에 대해 갖는 인상이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인상이 갖는 성격을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가 그러한 인상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 세계가 그 스스로 연속성을 갖는 대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¹⁶⁾ 이 문제는 칸트(I. Kant)를 비롯하여 최근까지도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 ‘지각의 문제’로 알려진 것으로 인식론의 오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이 문제가 흄에게서 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기본적인 전제라 할

16) 이를 지각과 관련한 흄의 회의주의라고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서 흄에게서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이론에 따르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궁극적으로는 모두 특정의 순간에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즉 인상들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수 있는 인상이론 때문이다. 물론 흄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다각적으로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쟁 역시 본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상상력과 연관된 문제만을 다룰 것이다.

외부 세계의 존재와 관련한 문제에서 흄의 주된 관심사는 그러한 믿음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흄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확보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존재성 여부와 관련하여 대상들에 대해 우리가 지각하는 것과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¹⁷⁾ 이러한 의혹의 근거는 자명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이 대상의 지속성에 대한 인상을 줄 수 없는 동시에, 대상의 지속성 자체는 우리가 감각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의 감각과는 무관한 독립된 대상에 대한 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표상(representation)된 것이거나 혹은 외적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감각에 의해 제공된 인상이 어떤 독립된 대상에 관한 혹은 외적인 것에 관한 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감각은 우리에게 지각된 것만을 제공할 따름이지 그것을 넘어선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한 인상이 주어질 경우 그 인상과 독립적인 어떤 것이 존재하리라는 믿음, 즉 인상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별도의 어떤 것이 존재하리라는 믿음은 감각과는 무관한 다른 능력의 작용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능력에서 비롯되는 추측이나 추론일 따름이지 감각 그 자체로부터 산출되지는 않을 것이다.

흄은 대상들의 지속적 그리고 구별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감각으로부터 획득된 것이 아닐 경우 그 후보로 이성을 들고 있는데 이 역시 회의적이다.¹⁸⁾ 그래서 흄에 따르면 외부 세계가 우리의 인식과 무관하게 그

17) 그의 말을 직접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들이 우리의 감각에 나타나 있지도 않은데도 왜 우리는 그것들에 지속적인(continued) 존재를 부여하는가? 왜 우리는 대상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각과는 구별되는(distinct) 존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D. Hume(1978), 188쪽.]

18) 이성이 그러한 믿음을 산출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어떤 이성적인 논증(argument)

자체 독립적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을 감각도 이성도 아닌 상상력에서 그 답변을 찾고 있다.¹⁹⁾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상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인간들이 갖는 어떤 성질과 상상력이 갖고 있는 어떤 성질이 함께 작용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인간들이 갖는 성질로 흄은 불변성(constancy)²⁰⁾과 정합성(coherence)²¹⁾을 들고 있다. 이 두 성질에 대해 흄은 “이 세계가 나의 지각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라도 나는 자연적으로 세계가 실재적(real)이고 지속적인 어떤 것, 그 존재를 계속 유지하는 어떤 것이라고 간주하게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²²⁾

그러나 흄은 지각의 불변성과 정합성만으로 왜 그러한 자연적인 믿음이 생기게 되는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습관이란 지각의 규칙적인 반복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기에 습관이 아무리 쌓이더라도 지각의 반복에 따른 규칙성의 정도를 넘지 못할 것이고, 또

에 근거하고 있음을 뜻할 것이고, 이 때의 이성적인 논증은 바로 철학에 의해서 제시되기 마련인데, 철학적 논증에 의해 확증되는 것은 통상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인데 바로 문제의 믿음도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준호는 관점을 달리한다. 이성을 좁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 계산 능력을, 넓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 종합적 구성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을 뜻한다는 것이다. 이준호(2005), 47-54쪽.

19) D. Hume(1978), 194쪽.

20) 우리가 보통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은 특이한 불변성을 갖고 있어 이 불변성으로 인하여 이 대상들은 다른 대상들, 즉 우리가 지각할 때는 나타났다가 지각하지 않을 때는 사라져버리는 지각 의존적인 대상들과 구분된다. 예컨대 현재 나의 시야에 나타나는 산, 집, 나무같은 것들은 항상 동일한 것으로 지각되며 내가 눈을 감거나 머리를 돌려 그것들을 보지 않을 때라도 다시 눈을 뜨거나 머리를 원위치시키더라도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다시 나타난다.

21) 지각이 단절되는 경우에도 정합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게 된다. 정합성이 유지된다는 말을 흄은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하고 있다. (Cf. T 195) 내가 방을 비우고 한 시간 쯤 후에 다시 방으로 돌아 왔을 때 나의 방에 있는 화로불의 상태가 방을 떠났을 때 내가 보았던 상태와 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고 해 보자. 이럴 경우 나는 그 변화를 보고 놀라거나 의아해 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여러 차례 겪어 왔기에 그러한 변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22) D. Hume(1978), 197쪽.

지각의 규칙성의 정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대상 그 자체보다 더 큰 규칙성을 지니는 근거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²³⁾ 다시 말해서 연속적인 존재로서의 대상에 대한 믿음은 지각의 반복이나 습관에 의해 확보되는 정도의 정합성이나 규칙성만에 의존하여 형성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흄은 여기에 상상력의 작용이 덧붙여져야 그러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속적인 존재로서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형성함에 있어 상상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말하자면 연속적인 존재로서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각이나 습관에 의해 생기는 정합성이나 규칙성의 정도보다 더 큰 정도의 규칙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상상력의 역할에 관한 측면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흄은 상상력이 갖는 항상성이라는 성질을 들고 있다. 말하자면 상상력이란 일단 어떤 생각이라도 생각의 흐름 속에 개입된다면 그 대상이 부재할 경우에도 계속 작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⁴⁾ 그렇다면 상상력에 대한 흄의 해석은 지각과 습관에 따른 규칙성보다 더욱 강한 정도의 규칙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외부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규칙성이 확보되는 것은 바로 상상력의 이러한 특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일 것이다.²⁵⁾

흄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상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인상들 간의 이러한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상력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말하자면 각각의 인상들에 대해

23) D. Hume(1978), 197쪽.

24) 흄은 이에 대한 비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즉, “마치 노를 한참 저은 후에도 계속 움직이는 갤리선(船) 같이 어떤 힘도 주어지지 않더라도 정해진 길을 계속 나아간다고 한다.” (T 198)

25) 구체적으로 말해서, 유사한 지각을 한 동안 반복한 후 이젠 더 이상 지각을 하지 않을 때에도 대상은 여전히 거기에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됨은 비유적으로 말하여 일단 발동이 걸린 상상력이, 마치 갤리선이 노를 한 동안 저은 후에 더 이상 노를 젓지 않아도 계속 가듯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서로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일하다고 여기게 되는데 그러한 동일성은 상상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일성은 곧 상상력에 의하여 확보되는 것이다. 인상들 간에는 사실상 유사성만 있을 따름인데 상상력이 이 유사성을 동일성으로 변환시키게 된다. 흄의 주장에 따르면, 유사한 지각들의 관념을 따라 움직이는 상상력의 유연한 흐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지각들에 동일성을 부여하게끔 한다.²⁶⁾ 그래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서로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지각되는데,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동일한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상상력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흄의 철학에서 상상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외부 세계의 존재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흄의 기획과 의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흄에게 있어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상상력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지각에 단순히 주어진 것들을 넘어 원인과 결과간에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는 믿음, 구체적인 관념들을 넘어 그 관념들을 묶어 준다고 생각되는 자아(인격)라고 불리는 동일한 어떤 실체가 있다는 믿음 등은 모두 상상력의 작용으로 가능한 것들이다.

나아가 흄은 새로운 사실을 인위적으로 고안해 내는 정신의 창조적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의 구성적 종합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상상력이 구성해 낸 관념을 참이라고 믿는 기준이 그 관념에 대응하는 인상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기존 형이상학 체계에 대해 비판하는 것까지도 포함한

26) D. Hume(1978), 205쪽.

다. 물론 인상과 무관한 관념을 허구로 단정하는 이러한 측면은 흄의 철학이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점은 흄이 시인하고 있듯이 인간의 본성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상상력이 영구적이고 불가항력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속하는 동시에 인간의 모든 사유와 행위의 기초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없이는 인간의 본성 또한 즉각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다.²⁷⁾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의 작용에 근거하여 생겨난 믿음은 마치 인간에게 병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과 같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한다.²⁸⁾ 흄의 철학에서 상상력이 그 어떠한 능력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상의 파편들을 하나로 모으거나 조직화하여 지식의 확실성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인간 본성에 비추어 참된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흄 자신도 시인하듯이 이성과 거의 동등한 능력이기도 하다.

최근 ‘상상력’을 둘러싼 문제가 인문학에서 또 다시 주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위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돌파구를 상상력에서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흄의 상상력에 관한 철학적 근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의 본성에 대한 이해는 기존 문학이나 철학에서 산발적으로 다루어 온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잣대로서의 구실을 어느 정도 해주리라 기대된다. 말하자면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기존의 연구에서 많은 부분 상상력의 문제를 다루어 오기는 했지만 허약한 토대에 기반한 논의를 교육방법론 등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인문학적 사유 지평 확장을 위한 모델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물론 이 논의 자체로 이러한 성과를 전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상상력에 대한 또 다른 이론의 궤적을 추적/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측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나아가 견고한 이론적 토대와 교육방법론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면,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인문학의 기반을 더욱 심

27) D. Hume(1978), 225쪽.

28) D. Hume(1978), 226쪽.

화, 확장시켜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적 사유지평 확장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상상력의 본성에 대한 연구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이 구축해야 하는 분야이기에, 인문학의 활성화를 위한 적합성 모델의 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지적 창조 작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상상력에서 비롯된다고 했을 때, 그 활용은 독자의 사유를 촉발해 내기 위한 ‘생각하기’라는 콘텐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와 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할 것 같다.

(중앙대학교)

참고문헌

- 김효명, “흄의 자연주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1997.
- _____, “영국경험론에서 관념의 문제”, 『철학사상』,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2002.
- 이준호, 『데이비드 흄』, 살림, 2005.
- 장영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 서광사, 2000.
- 최희봉, “흄의 철학과 근대과학: 과학의 확장과 그 인식론적 기초”, 『범한철학』, 범한철학회, 2004.
- Hume D., 『인간본성에 관한 논고 -오성에 관하여』(이준호 역), 서광사, 1994.
- Kant I., 『순수이성비판』(전원배 역), 삼성출판사, 1982.
- Hume , D., *Enquiries concerning the Hum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 ed. by L. Selby-Bigge , Oxford, 1975.
- _____,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 by L.A. Sel by-Bigge , Oxfor d, 1978.
- Flew, A. , *Hume's Philosophy of Belief* , London, 1961.
- Flage, D.E. , *David Hum's Theory of Mind*, London, 1990.
- Fogelin, R. , *Hume 's Skepticism in the Treatise of Human Nature*, London, 1985.
- Furlong, E. J., "Imagination in Hume's Treatise and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in *Philosophy* 36, 1961.
- Kemp-Smith, N., *The Philosophy of David Hume* , London, 1941.
- B.Russell, *The Problems of Philosophy*, Oxford U.P., 1912.
- Strawson P. F., "Imagination and perception" in *Freedom and Resentment*, Methuen, 1974.
- Streminger, G., "Hume's Theory of Imagination", in *Hume Studies*, 1980.
- Stroud, B., *Hume*, London, 1977.

Thompson M., "Categories" in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2, Macmillan, 1967.

Twyman, S., *David Hume : Critical Assessments*, vol s. 1-6, London, 1995.

Philosophical ground of 'Imagination'

Byung-Sun, Hong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philosophical ground about 'imagination'. D. Hume thought of an imagination as one of philosophical subjects that is core, and regarded the proper understanding about imagination as to solve the difficult philosophical problem. The investigation about fact that imagination occupies what kind of location and play what kind of the role consequently from D. Hume philosophy is to mean work. To D. Hume, what be able to secure an identity over the discontinuation of each impressions is possible through only imagination. Also belief that is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cause and effect over the fact that simply comes to give to a perception is possible through only imagination. And belief that is what kind of identical entity called the self (personality) which tie those idea over the concrete ideas is to be possible in action of all imagination. Ultimately, D. Hume's philosophy expect to contribute in expansion of humanitic thinking.

Key Words: imagination, D. Hume, impression, creativity, humanities.

홍병선 e-mail: hbshong@cau.ac.kr